

(p. 123, 127, 292), ‘*-린다’ (p. 124, 127, 294)로 파악하는 일, 중세국어 상대
 경어법에 반말을 하나의 등분으로 추가하는 일(pp. 125~6, 266, 296~7, 299),
 관형사형 어미를 보수적인 평서형 어미 ‘-니라’에서 ‘-이라’가 떨어져 형
 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일(p. 127, 280~1), 경계문 설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p. 301), 인용 동사에 타동사 표지 ‘-아/어-’가 통합되어 나오는 것을 근
 거로 인용절을 목적어 명사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일(pp. 317~8)등
 이 그것이다.

이상 주마간산격으로 본서를 대충 살펴 보았다. 현재 필자의 처지로서
 는 본서의 서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의람된 것을 본의 아니게 저
 지른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루어진 업적
 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중세국어 문법의 전체 윤곽을 이만큼 짜임새 있게
 제시해 주신 저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글을 맺는다. *

兒童의 言語發達

—韓國兒童의 段階別 位相—

李 仁 燮 著

新菊版 297面. 1986. 9. 開文社

盧 命 完

(韓國教育開發院, 國語教育學)

비록 전체 면수는 297면밖에 되지 않지만, 이 研究書는 국내 문헌 192
 개, 일본 문헌 16개, 영문 문헌 129개, 총 337개의 문헌을 참고하면서
 한국 아동의 한국어 발달을 기술한 방대하고도 의욕이 넘치는 종합 연구

서이다. 저자의 박사 학위 청구 논문의 단행본 출판서인 이 연구서에서 저자는 20여 년 간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言語發達의 普遍性(一般言語發達論)과 個別性(韓國語의 發達)의 양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서명자는 물론, 다른 독자들도 이 연구서에 제시된 자료의 방대함에 저자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두 7장(I. 序論 II. 研究史 III. 言語發達에 관한 理論的 基礎 IV. 幼兒期の 言語發達 V. 兒童期の 言語發達 VI. 言語發達의 普遍性和 個別性 VII. 結論)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先行研究의 概觀과 言語發達의 理論으로서 I, II, III 장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부분은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의 언어 발달로서 IV 장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국민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어 발달(V장 및 VI장)이다.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의 언어 발달 연구는 직접 관찰 자료에 의존하였고, 국민 학교 아동 대상의 연구는 직접 관찰 자료와 함께 질문지에 의한 조사 자료도 함께 취급하였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출생부터 국민 학교를 마치게 되는 12세까지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을 언어의 構造와 機能 양측면으로 位相지었는데, 이는 言語發達課業을 설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記述的 연구에서 課業에 따른 教育的 연구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한 저자의 연구 포부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아동의 言語發達을 언어의 習得(acquisition)과 學習(learning)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자연스런 언어 환경에의 노출에서 오는 언어 습득에도 의도적인 教育的 要因이 내포되어 있으며, 국민 학교 취학기의 언어 학습도 生得能力(competence)의 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저자는 習得과 學習 양자를 설명 원리로 볼 때에만 언어 발달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兒童의 言語發達」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책에서 출생에서부터 국민 학교 6학년 아동의 언어 자료를 함께 발달적인 측면으로 취급한 것은 이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語彙의 把持, 意味의 聯想, 作文能力의 發達, 그리고 국민 학교 취학 후

에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敬語의 사용까지 모두 발달적인 측면에서 生得的인 言語能力的 발현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가정이 아닌가 한다. 그 단적인 예의 하나가 국민 학교 1학년 학생들이 2~3학년 학생들보다 더 바르게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p.248, 표4).

이 연구서의 핵심이며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연구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제Ⅳ장의 幼兒期的의 言語發達 부분이다. 이章에서 저자는 저자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와 국내의 다른 연구물에서 발췌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저자 나름대로 유아기(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기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p.68). :

(1) 각 단계의 아동어는 그 아동에게 최적한 언어다. 성인어의 관점에서 非文法的이라거나 逸脫된 것이라는 평가는 무의미하다.

(2) 언어의 습득은 아동의 내적 요구와 언어 형식 간의 平衡化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平衡化는 量的 變化와 質的 變化를 수반한다.

(3) 언어 발달에서 生得性 못지 않게 학습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相互作用說 내지는 構成主義에 기울고 있음을 뜻한다.

아동의 언어 발달을 아동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동의 내적 요구(저자는 아동의 내적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서평자는 이를 生理的 要求와 표현하고자 하는 意味로 보고 싶다.)와 언어 형식, 그리고 환경 사이의 구성적 명형화로 본 저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같은 관점은 아동의 언어를 생물학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상관 속에서 탐구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75년에 프랑스의 Abbaye de Royaumont에서 벌어진 生得主義者 Chomsky와 構成主義者 Piaget 사이의 대논쟁이 명쾌한 승패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은 아동의 언어 발달이 생득적인 측면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오는 구성적인 측면 모두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Piattelli-Palmarini, 1980 참조).

아동의 언어를 生物(理)的, 認知的, 그리고 社會的 소산으로 보는 최근의 언어 발달 연구 경향은 기존의 Chomsky 식의 연구 즉, 발달을 生得的인 言語習得機制(LAD)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生得主義, 그리고 Piaget의

認知發達 段階說에 기초를 둔 言語發達 段階說 모두에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때 세상을 흥미했던 變形生成文法으로 언어 발달을 연구한 언어심리학자들은 아동 언어를 技能과 知識으로 기술하려 하였으나 이런 경향은 아동 언어의 學習과 發達을 소홀히 하였다. 그런 반면, 認知發達에 기초한 아동 언어 연구는 언어가 意味와 形式의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고, 언어 행위에 나타나는 언어는 주의와 관심의 직접적 대상 즉 형식이면서 동시에 의미 전달을 위한 수단도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즉, 언어 사용은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이면서 또한 그같은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의 의식적인 사용이기도 하다. **李** 교수의 「**兒童의 言語發達**」 연구가 언어의 이같은 양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일말의 아쉬움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언어 발달을 기술함에 있어서 저자는 生得과 構成 모두를 함께 고려한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Chomsky 와 그의 동료들의 記述 方法 또는 Piaget 의 方法을 개별적으로 적용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저자가 보인 20 여 년 간의 일관된 연구, 방대한 문헌 섭렵과 자료 제시는 독자가 간간히 느끼는 이론의 일관성 결여를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어느 한 개인에게 萬能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책을 대학원 이상의 학도들에게 권하고 싶다. *

참고 문헌

Piattelli-Palmarini, M. (Ed.), Language and learning: The debate between Jean Piaget and Noam Chomsk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